

임상빈 Sangbin IM

1976 년 서울 출생

[www.sangbinim.com](http://www.sangbinim.com)

## 물질성과 가상성의 교차로 드러나는 새로운 시공

### 1. 예술적 목표

나는 아날로그 문화에서 자라나 디지털 문화를 본격적으로 접한 X 세대에 속한다. 내 예술적 목표는 사진과 회화를 통해 이 두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진을 통해 자본주의 욕망의 달콤하고 처연한 아이러니를 드러내며, '실재'와 '가상'이 뒤섞인 풍경을 목도한다. 그리고 회화를 통해 비대면 사회에 더욱 절실한 축적되며 돌출하는 촉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물질성'과 '비물질성'이 혼재되는 흔적을 탐색한다.

### 2. 사진적 방법론

디지털카메라와 포스트프로덕션을 활용하여 수많은 이미지를 찍고 이를 엮어 초현실적인 광경을 생성한다. 사진을 통해 나는 '초실제적 극사실성'을 추구한다. 즉, 실재보다 더욱 실재적인 초월적인 광경을 탐구한다.

### 3. 회화적 방법론

의식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붓질의 흔적을 축적하다 보면 우연적 표현에 물질적 무게감을 더하는 추상적인 풍경에 도달한다. 회화를 통해 나는 '물질적 정신성'을 추구한다. 즉, 도무지 이미지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촉감을 제공한다.

### 4. 개인적 의미

사진과 회화를 통해 나는 대립항의 긴장, 특히 상대적으로 분류되는 '부분과 전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기운생동'하는 광경을 즐긴다. 이는 단순히 미시적인 한 삶의 단편으로 치부되기보다는 개인의 욕망과 사회의 구조가 충돌하거나 화합하는 보다 거시적인 구조의 유지나 균열, 혹은 변모하는 모습을 여러모로 반영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휘되는 고유의 예술적 상상력은 내게 소시민의 한계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쾌감을 선사한다.

### 5. 사회문화적 의의

여러 미디어를 활용하는 나의 예술 활동은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융합'을 반영하고 확산한다. 특히 실제세계(universe)와 가상세계(metaverse)가 여러 방식으로 중첩되며 변모하는 작금의 시대,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삶의 '가치'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나는 동시대와 호흡하며 이를 점검하고 반영하며 나아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자 한다.